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406

2009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아동미술 교육에서 프뢰벨의 놀이 교육이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지 현

아동미술 교육에서 프뢰벨의 놀이 교육이 미치는 영향 연구

Study for the effect of FROEBEL gabe education on juvenile art education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지 현

dCollection @ chosun

아동미술 교육에서 프뢰벨의 놀이 교육이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교수 김 익 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지 현

dCollection @ chosun

안 지 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윤 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익 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Ⅰ.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목적.....1
2. 연구 방법 및 범위.....2

Ⅱ. 프뢰벨과 아동교육과의 관계.....4
1. 프뢰벨 교육이론 및 성립배경.....4
2. 프뢰벨의 교육목적.....9
3. 프뢰벨의 아동관과 교육내용.....12

Ⅲ. 아동 미술교육의 발달영역 특징.....16
1. 아동 미술의 정의와 특징 16
2. 아동발달 영역별 특성 19

Ⅳ.프뢰벨 미술 교육과 놀이 33
1. 프뢰벨의 놀이에 대한 견해.....33
2. 아동발달과 프뢰벨 놀이이론의 관계.....36
3. 은물과 놀이의 특징.....38
4. 은물 교육의 내용.....41

dCollection @ chosun

Ⅴ. 프뢰벨 미술교육의 창의력신장과 실제 적용.....46
1. 창의성의 정의와 필요성.....46
2. 작업을 통한 창의성과 아동놀이의 실제 적용.....49

Ⅵ.결론 71

Ⅶ. 참고문헌.....73

dCollection @ chosun

국문 초록

아동미술 교육에서 프뢰벨의놀이 교육이 미치는 영향 연구

안지현
지도교수 : 김 익모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현대에는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을 소재로 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 어릴 적 경험하고 느낀 것 들이 밑바탕이 되어 자란다는 것을 많은 문헌과 자료를 통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나 아동을 둔 부모들은 비용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더 좋은 환경과 특별한 커리큘럼이 짜여진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유아나 아동의 감성적인 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프뢰벨의 놀이교육을 미술과 접목하여 생각해 보았다.

유아와 아동은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미성과 창의성 발달은 물론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발달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창의적 발달은 미술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남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창의력은 물론 창의적인 태도가 길러지게 된다. 또한 어떤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표현력이나 감성이 발달된다.

이런 점이 내가 유아 미술활동을 프뢰벨 놀이교육과 접목시켜 생각하게 된 이유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가베교구들이 창안되었다는 점이 아동의 성장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구들을 살펴보면서 생활에서 얼마든지 착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손쉽게 다루고 부모가 지도하기에 유용한 놀이가 된다는 사실도 조사가 되었다.최근 유치원미술 교육과정에서의 방향은 유아에게 스스로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표현하게 하는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필자의 이번 논문연구 결과를 통해, 정답이 없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끊

dCollection @ chosun

임없이 노력하고 놀이해 온 결과물들을 보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미치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Abstract

Study for the effect of FROEBEL gabe education on juvenile art education

ji-hyun An

Advisor : Prof. Ik-mo, Kim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se days, an enormous number of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with creative ideas and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we develop further based on what they experience and feel in their childhood through many bibliographical data and publications.

So parents who have infants or young children prefer kindergartens with better environment and special curriculum though they have mor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text, this study speculates grafting of Froebel 's play education on art that considers emotional aspect of children.

Infants or young children have physical,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as well as aesthetic appreciation and creativity through artistic activities.

Creative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helps them to have creative attitudes by solving diverse problems occurring through artistic activities in different ways.

Also, children can develop their expression and emotion while

dCollection @ chosun

thinking what materials and tools they have to use for diverse expressions.

That's why this study is to graft artistic activities of infants on Froebel‘s play education

This study found that Gabe tools were created through the basic process very similar to that of growth of children.

And, it was found that they can be easily dealt with in daily life and are very useful tool for parents to teach.

The current directions of art curriculum in kindergarten focus on creative expressive activities through which infants can have opportunities to express themselv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enhance a role of a supporter who praises children.

d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 교육은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 아동미술, 초등미술, 중등미술, 입시미술로 나뉜다. 그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대상으로 한 아동의 진정한 미술활동의 정의를 내리자면 매체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매체 표현으로는 그림, 핑거페인팅, 꼴라쥬, 밀가루 점토와 찰흙 및 목공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목적 쌓기나 또는 글씨 쓰기 등의 놀이나 학습활동도 유아들이 순수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작업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미술이 될 수 있다 여겨진다. 예전 유치원 생활을 생각해 보면 숫자를 익히거나 한글을 익히고 지적 활동에 더 치우치거나 단순 놀이 개념 에서는 놀이터에 뛰어놀거나 흙놀이의 경험을 많이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순수성에 더 기초를 두고 수업을 가장한 놀이를 진행한다. 미술 따로 음악 따로 지적활동 따로가 아닌 동시에 멀티형으로 배울 수 있는 복합적인 창의력 신장 영재 계발 수업에 관심사를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대부분은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아기 때의 놀이는 한 인간의 생애에 어떠한 인격체로써 형성 될 수 있는가를 판가름 하게 된다.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는 생활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놀이를 통하여 사회를 익히고 질서를 익히고 진리를 익히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유아를 통해 계획하고 교육방법을 성립시킨 대표적인 학자 프뢰벨은 놀이를 간단히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라 하고 인간과 사물에 내적으로 감추어온 자연스런 생활 자체라고 칭한다. 즉, '유아의 놀이 활동은 교육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만 발달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표현했다. 또한 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감 역시도 기본적이면서 다양성을 창출해 낼 수 있을 만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냄으로써 갖는 성취감 또한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 은물이라는 놀이감과 놀이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아동 미술 에서 프뢰벨의 영향을 준 부분과 현재 사용되며 교육되고 있는 방법 역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놀이나 놀이감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수업 안을 생각해 보고 미술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말 그대로의 놀이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프뢰벨의 교육관과 성립배경 그리고 은물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참고문헌을 토대로 시행해 옮기는 과정을 반복했다. 연구 대상 선정은 어릴 적 감수성을 길러주고 창의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필자의 아동 미술의 관심을 토대로 시작 되었으며 시범적으로 여러 지인을 통하여 어린이 미술학원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프뢰벨의 가베 교구장을 방문하여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령대와 교구를 살펴보았고 실제로 본 연구자 역시도 그 교구들을 가지고 놀이에 임해보았다. 본 연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로 국내외 문헌조사 , 인터넷 웹 서핑 활용 , 서적 등 유아의 창의성과 프뢰벨의 교구와의 관계를 아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그에 부합되는 예시물 들을 도판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나 그 연구 범위를 정확히 구분 짓지 않아 다양하고 폭넓은 놀이 교육을 알 수 있게 하였다. 1장에서는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연구 목적을 정리하였고, 2장에서는 프뢰벨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배경을 알아보았다.

본론에서는 아동미술의 개념과 프뢰벨의 은물과 놀이에 대한 유아동의 발달능력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 미술수업 방법에 대한 결론을 정리 하였다. 연구범위는 프뢰벨의 1은물부터 10은물 그리고 11작업과 20작업을 활용하여 수업 연구를 해보았고 일반적인 아동미술 방법과 접목 시켜 보았다.

dCollection @ chosun

Ⅱ.프뢰벨과 아동교육과의 관계

1. 프뢰벨 교육 이론 성립배경

프뢰벨의 고유한 사상은 인간을 그리워하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지닐 줄 아는 낭만주의적 사고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합리적이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계몽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는데서 시발점을 두고 있다. 그는 감정이 풍부하고 사고하며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철학쪽에 관심이 매우 높았다. 청년기를 살펴보자면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도 생기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사고하려 하였고 특히 자연의 법칙과 신비로운 것을 밝히려 항상 고민 했다. 그의 전공은 자연과학과 수학임에도 당시 사회적 흐름자체가 철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역시도 철학에 매우 흥미로움을 느꼈다. 자연과학과 분리할 수 없는 철학 자체의 이론들이 당시 단일성이란 사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을 시절이다. 그는 철학적 교양이 풍부한 친구와의 교재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을 즐겼고 그가 항상 생각하는 바로는 생활의 교재 범위 안에서 철학사상을 끌어내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1] 이런 프뢰벨 등의 낭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부로의 길, 영원한 진리는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항상 시간을 초월한데서 이데아와 현실은 끊임없이 서로 분리되고 결합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내려 하였다.

---

1) 곽노의 , 『 프뢰벨의 유아교육 이론 연구 』,(서울: 학민사 , 1994), p128~129 재인용

dCollection @ chosun

낭만주의자적 인간은 유한 속에서 무한을, 시간 속에서 초시간적인 것을, 무상 속에서 영원을, 지상적인 것에서 천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추구하려 한다. 이런 낭만주의적 낭만주의 운동이 교육사상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인간성 교육이며, 교육학 이라는 의미를 창조하여 인간형성이라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정립하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사고와 교육제도상의 혁신적인 가치를 지니게 했다. 이 시대의 철학적 사상은 피히테, 헤겔, 슐라이에르마허, 헤르바르트 등에 의해 교육이론을 지속 발전 시켰다 . 경향은 프뢰벨의 저서인 인간교육에서 엿 볼 수 있다.

그의 철학적 영향을 준 저작들을 살펴보자면 고전문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당시 책들은 시인이나 사상가들의 하나의 목적 즉 새로운 세계관을 추구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관을 찾는 것 바로 계발이라 표현한다. 그는 쉐링의 사상을 심취하고 있는 한편 헤겔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보는 사상도 받아들였다.[2] 프뢰벨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선하므로 모든 천부적인 재능들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하며 이 모든 재능들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것, 즉 인간의 모든 재능들을 조화시키는 것 이 프뢰벨의 교육사상 이였다. 특히 수목의 세계는 소년시절의 프뢰벨에게 인간생활의 표본이며 상징 이였다. 쉐링의 자연철학에 심취하는 한편 크라우제의 신에 대한 개념, 즉 만유 제신론에 관심을 가졌다. 크라우제의 철학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은 신속에서 신에 의해 존재하고 전 지구의 유기적 자연계는 신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 만물은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것이다.

---

2) 서석남 역 , 『어머니의 노래와 애무의 노래』, (서울 양서원 ,1993), p.29

dCollection @ chosun

그리하여 프뢰벨의 생명교육의 합일 사상은 크라우제의 영향이 컸다.

삶이란 개념이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본질적 이고 생동적인 것을 삶이란 말로 표현했다. 이는 철학적 교육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교육학의 기본개념을 내부로부터 조화로운 성장으로 강조하였으며, 이 개념은 유기체의 생명의 단순한 기계적인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형태성과 전체성과 통일적인 관련성을 강조했다.

프뢰벨이 페스탈로치와 만나면서 교육학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807년이였다. 프뢰벨은 페스탈로치의 교육방법에 대해 전면적인 심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불만이나 의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바라는 새로 발견한 생명과 정신에 의한 교육론, 학교 조직이나 교과과정 등과 같은 형태 앞에서 고갈되고 말 것 이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이런 구속에서 해방되어 생명활동의 자유로운 발전법칙에 따른 교육을 하기위해 자기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래서 교육의 근본적인 조화의 원리를 탐구하려고 했으며, 이를 구의 법칙으로 단일화 시켰다.

즉, 구의 법칙 안에서 그의 형이상학의 근본 구상이 교육학적 형식을 빌어서 이른바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페스탈로치[3]에 의해 정화된 프뢰벨의 교육에 대한 정열은 구의 법칙의 착상에 의해 내적인 성숙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3) 페스탈로치 ,(1746.1.12~1827.2.17) , 스위스의 교육자로 노이호프에 농민학교를 세웠고 부르크도르프, 이베르돈에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방법을 실천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은자의 황혼》,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백조의 노래》 등이 있으며 교육이상으로서 전인적(全人的)·조화적 인간도야를 주장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페스탈로치는 어린이의 정신형성에 본질은 지식내용을 습득하기 전에 인식에 필요한 요소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프뢰벨의 인지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움이 그가 호응하는 세계의 내용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페스탈로치의 교육학의 핵심은 직관으로 교육의 기초는 직관을 신중히 발달시키는데 있고, 지식의 구도도 이에 상호 의존적 이라고 보고 있다.

프뢰벨도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획득한 직접경험, 즉 직관을 통하여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에 접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직관보다 예감이 강조되어 이는 보다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뢰벨에게 감각적 직관은 처음부터 정신적 예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감은 비록 미숙한 형태라 하여도 이미 이해한 것이며, 이 예감에 의해 주어진 이해는 보다 완전하고 명백하게 인지되어 간다. 어린이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페스탈로치가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여러 개의 산발적인 주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각각 떨어진 정의를 말하도록 한다면 프뢰벨은 교육이란 처음부터 총체적 흥미나 관심을 대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교육 방안은 어린이에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흥미나 관심대상의 체계적인 활동을 증폭 시키는데 중요한 안건으로 여긴다. 이렇듯 프뢰벨의 교육사상은 낭만주의와 관념론이라는 토양 속에서 잉태되고 발전해왔다. 인간내부로부터의 조화로운 성장을 강조했으며 어린이는 자신의 내부에 개별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그리고 그는 바람직한 교육이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소질과 능력을 올바른 양육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라고 했다. 이는 교육의 근본적인 합일원리를 체험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란 이러한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작용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프뢰벨은 구의 법칙이 참된 인간교육의 근본원칙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형 크리스토프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교육학은 어떠한 철학적인 범주에도 속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쓰고 있다.

4)또 이 서신 내용 중에서는 우수한 교사가 구비해야 할 것으로 철학을 들었다. 이러한 면을 보더라도 프뢰벨이 철학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 있다. 그의 학력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철학의 연구에 몰두 했으며 또한 그가 연구한 철학적 원리가 자신의 교육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프뢰벨이 세상에 없는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사상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철학 분야가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유치원이 설립되고 창시되었지만 그의 교육학적 본질을 분명히 하기보다는 외면적인 것에 더 치중하여 프뢰벨을 생각하게 된다. 필자의 생각은 그의 유치원 설립 역시도 당대에 높이 평가할 업적이지만 그의 본질적인 철학사상의 토대와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진 그의 낭만적인 교육학적 시선 역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

4) 박정자, "프뢰벨과 몬테소리 교육사상 비교 연구",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1996)pp.39~40

dCollection @ chosun

2. 프뢰벨의 교육 목적

프뢰벨은 종교적인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고 인간본성을 신성으로 표현한다. 또한 신성이란 개념은 잠재적인 유아의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신의 창조물인 인간은 자극과 수용을 반복하고 그 자극을 통해 신나는 사고와 실행들이 조화스럽게 이루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은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간 내부로 부터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간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스스로 자기활동을 통해서 신성이 표현된다고 했다. 그러나, 신은 본질상 정신적 존재로서의 의미로만 인식될 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유한한 사물들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며 이는 모든 사물들 속에 작용하는 신적인 정신이 사물의 본질이고 교육의 의미에 관한 인간본성은 신성의 외적표현이다. 이는 처음에는 잠재적 능력의 형태로 주어지나 성장을 통해 뚜렷해진다.

프뢰벨은 페스탈로치의 말에 빚대어 유아를 정원에 뿌려진 작은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 씨앗은 내적인 본성을 말하며 밑바닥에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유아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신적인 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발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내부의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은 이런 신적인 것을 의식 하고 인간을 자극하고 지도하는 것이며,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

dCollection @ chosun

하며,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이끌어주며 신적인 통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 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원시적이고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의식하며 신적인 통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고차원 적인 아동의 자연성을 중시했다.

프뢰벨의 교육목적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페스탈로치의 자연발달의 원리와 피히테의 행동의 원리를 결합하여 아동의 자연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교육은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며 각자가 영원한 법칙에 의거한 가운데 내부로부터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자연스러운 자기 활동적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즉,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선천적 능력, 즉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 시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내부에는 장래의 곡식인 종자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고 인간을 식물로 보았다. 그는 교육자의 목적은 원예가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식물이 성장하고 개화, 결실을 맺는 것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끊임없는 주의와 보호를 하면서 필요한 때는 곧바로 명령적, 규정적 교육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았다.[5] 이러한 교육목적에 기초하여 프뢰벨은 자기표현의 활동을 교육내용으로서 대단히 중요시하였고 그가 교육에 공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자기표현의 방법으로서의 놀이의 본질적 요소와 자기활동을 중시하도록 한 점이다.

5) 장현우, " 프뢰벨의놀이이론고찰 " ,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5) p6~9

dCollection @ chosun

프뢰벨의 교육의 목적은 신성한 삶을 충실히 표현하는데 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원만하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 또한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로움과 움직임 생명법칙에 따라 신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지도할 것을 주장하고 유아를 인류와 자연 속에서 생명의 근원인 신과의 일치를 바라는 가운데 일관된 신념으로 유아를 교육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모든 사물은 자연의 법칙인 발달의 법칙에 의해서 성장하며 교육이란 본질상의 뜻을 밝혀 자발적인 자기 활동을 함에 있어 잠재되어 있는 본성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간의 정신 속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신적인 본질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런 인간의 정신은 일과 행위를 통해 외부로 표출하며 본성을 외부로 발현하는 것으로써 자유로운 어린이들의 자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외부의 강력한 요구는 어린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파괴 시킬 뿐 아니라 프뢰벨의 교육이론이 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린이의 자유로운 자기활동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살피고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프뢰벨의 인간교육의 목적은 근원적인 신적 본질을 모든 측면에서 함양함으로써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양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프뢰벨의 교육은 본성을 발달시키는 것 보다 신적인 본질을 함양해야 된다고

dCollection @ chosun

하는 양육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어린이의 놀이 양육을 위해 재능을 일깨우는 슈필 가베를 제작했다. 자기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발달시키는 교구를 활용함으로 형성충돌과 표현 충돌 같은 바람직한 본성을 발달시킨다.

3. 프뢰벨의 아동관과 교육내용

프뢰벨의 교육관은 유아중심사상에 두고 있다. 인간은 신의 본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결정력에 의해 신성을 알고 느낄 수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고 발달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프뢰벨의 유아관의 기본전제는 유아는 자신의 내면을 바깥으로 표현하려는 자기활동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6]유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유아는 내부의 힘을 바깥으로 나타내려 할 때 이것이 자발적인 힘으로 작용해 유아의 인지를 전체적인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명백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의식적인 정신활동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유아가 사물의 모든 속성을 알기 원하는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의 모든 면을 검사하고 확대해보고 싶어 하는 탐색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프뢰벨은 유아를 탐색자로 본 점과 유아에게는 민감한 발달 시기가 있으며 그 민감성과 관련된 흥미를 보이는 시기가 있다고 하였다. [7] 프뢰벨의 교육방식은 자발성에 의한 신념의 차이이다.

---

6) 박성애, "프뢰벨의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지도방법 연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 대학원, 2004), pp6~9

7) 김미애,류경화 , 『놀이지도』, (서울, 동문사, 1997) , p.18~24

dCollection @ chosun

프뢰벨이 생각한 유치원 교사는 때때로 정원사에 비유된다. 정원사가 할 일은 그 식물이 순조롭게 자라도록 환경을 정비해 주는 일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아무데나 정원사 맘대로 가위질을 하기 전에 먼저 포도나무의 자연성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이해하며 그 힘을 스스로 증진시키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써야한다. 유아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유아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사의 역할은 중시한다. 따라서 유아는 자동교육의 원리에 따라 교구를 통해 학습하고 또래 상호관계에서 교사는 유아의 작업과정과 발달을 관찰하는 관찰자. 작업공간에서 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 유아와 교구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도록 도와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프뢰벨의 교육원리의 첫 번째는 신성에 중심을 둔 통일의 법칙이다. 프뢰벨은 신,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불가분의 관계의 원리를 주장한다. 인간은 신에게서 받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었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신성이라 표현했으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믿었다.

프뢰벨은 인간의 본질인 신성을 발휘 시키는 것이 교육이며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인간 내부의 것을 끄집어내는데 있으며 인간은 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신과 동일하도록 끊임없이 창조하고 일하고 표현하는 힘이 내제되어 신성을 알고 느낄 수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본성을 발달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프뢰벨은 은물이란 놀잇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주의 조화와 다양성, 상호 관련성 등을 배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공, 정육면체, 원통에서 찰흙, 종이 오리기 등에 이르기 까지 지금도 유아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최초의 체계적인 교구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은 창조성 활동성에 의하여 자라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스러운 교육 자발적 자기 활동 즉 노작활동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활동이란 자기 자신의 흥미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기대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창조적 활동을 일으키기 위한 교수내용 방법으로는 종교, 자연 ,수학, 언어, 예술 등을 들고 있다.[8)]

이 다섯 가지의 교수 내용들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 다음3가지 자기 내면적인 생명을 지행 하는 욕구 외에 본질을 자기 속에 넣으려고 하는 욕구, 내면적인 것을 직접 나타내는 욕구를 통해 도야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는 교수의 삼위일체론에 의해 각각 다룬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제 교과를 이해하려 할 때 세 영역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돌아가 5가지 교과 가운데 종교는 심정에 자연은 심정과 인식에 해당하고 수학, 언어, 예술은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학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매개적인 위치에 서 있으므로 이해에 관계되며 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언어는 지가 되고 인지된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관계가 있고 이성에 관계가 있으며 또한 요구한다.

---

8) 프뢰벨 저 서석남 옮김 ,『 인간교육 』, (서울 이석원 1995) , p267~299

dCollection @ chosun

그러나, 그것만으론 인간 전체성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하기에는 하나가 부족하다. 부족한 그 하나는 생명의 바로 생명의 표현인데, 그 의미로는 내부적인 생명 그 자체, 직접적으로 감수된 표현, 심정의 표현인 것이다.

프뢰벨의 교수내용은 자연과 종교를 연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세계에 대한 설명과 과거시대나 다른 나라의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교수해야 할 제 교과에 대해 프뢰벨은 인간 욕구를 심정적인 것, 인식적인 것, 표현적인 것의 삼위일체로 나타냄과 동시에 표현적인 것은 수학, 언어, 예술이라는 세겹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것들은 이 다루어졌던 바 있는 자연, 인간, 신 이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로 이어지는 소년을 모든 영역에서 내면화 하고 생기 있게 하기 윈해서 자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ollection @ chosun

Ⅲ. 아동미술 교육의 발달영역 특징

1. 아동미술의 정의와 특징

아동들은 본능적으로 만들고 꾸미고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다. 특히 아동들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느낀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친해지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동의 미술활동은 어른의 미술활동과 그 의미가 다르다. 유아들은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 및 경험을 표현하려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아동의 그림을 관찰하면 일반적인 관념을 벗어나 엉뚱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발견한다. 아동들은 그리거나 만들 것의 형상을 주변의 종이나 컵, 연필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도모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교육은 아동들에게 자유롭게 발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를 길러주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9]또한, 아동들에게 학습능력이 연령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지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지각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9) 양경희 , 『 열린 아동 미술교육』,(서울 학지사 1997) , p. 14~15

dCollection @ chosun

학습이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가장 좋은 하나의 교육방법이란 존재하기 어렵지만 우리 교육은 지능검사로 학습을 측정하기에 너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능이 인류의 방대한 사고 영역을 모두 포함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할 때 형식과 질서를 재발견 하고 새로운 관련성을 발견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학교교육에서는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배워야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문제의 해답과 방향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능력이다. 미술활동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런 능력을 구체화 시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은 수수깡이나 색종이 빨대 등으로 우주인 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작하거나 물감을 혼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는 대부분의 미술활동으로 창의성을 길러 질 수 있다.

아동미술 교육으로 바람직한 교육을 성취하려면 어린이의 성장 변화에 따른 표현의 발달 단계와 어떤 표현 유형 인지 창의성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성장 과정은 과정마다 특징이 나타나고 있듯이 그림의 발달에도 순서와 단계가 있다. 그림의 발달 단계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 성장속도, 환경, 소질, 의욕, 개성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유아기의 아동은 언어나 다른 전달 수단에 의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끄적거린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인 감정이나 갈등 등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그러므로 아동이 표현하는 미술 표현의 발달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아동의 표현이 어떠한 관정을 통해서 발달되어 나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아동마다 유전이나 환경에 개인차가 있어서 표준적인 발달과정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로웬펠드[10]는 그림의 시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의 표현은 인생의 출발과도 같은 훌륭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고 브리테인은 아동이 그림을 그리는 일은 지극히 자연발생적이며 아동은 조형 활동을 통해 표현 욕구를 발산하며 성장한다고 하였다. 피아제는 이 시기를 지각적 사고 단계라고 했으며 이때 처음으로 상징적 활동을 시작하고 주변사물의 형태를 사고로 처리해 나간다고 하였다. 프뢰벨은 아동발달은 내부적인 자아표현 또는 경험에 의하여 자연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며 아동의 창의적인 구성활동은 자발성과 사회적 제약을 조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주장했다.[11] 미술활동은 유아가 심미안적인 안목을 기르고 창의적인 발달을 하는 것을 돕는다.

유아들은 미술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주변의 환경과 현상들을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게 된다. 심미안적인 발달과 아울러 미술활동과 함께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창의성과 창의력을 기르게 된다.

---

10) 로웬펠드 , (1903~1960) ,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면서 미술교육을 체계화하여 세계의 현대미술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11) 전경원 , 『창의력 계발을 위한 유아 미술 교육 』,(서울 교문사 2002) , p.4~6

dCollection @ chosun

유아교육에서 창의성 발달은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미술교육에서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다양한 미술활동은 유아들에게 심미적 창의적 발달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성장발달 등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미술활동이 유아들에게 왜 중요한지 발달 영역 별로 다음 장에 소개해 보았다.

2. 아동발달 역역별 특성

1) 신체발달

유아들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한다. 어린 영아들은 커다란 물체를 잡게 되면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좀더 나이가 들면 두툼한 크레용을 손에 쥐고 종이위에 무엇인가 끄적거리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소근육 보다는 대근육을 사용한다.

커다란 붓에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다가 나이가 들면 작은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3세 정도가 되면 작은 크레용을 쥐고 제법 그림을 그릴 수 있다.[12]유아들은 미술활동 시간에 무엇인가 오리거나 자르거나 손으로 종이를 찢거나 풀이나 테이프를 붙이고 때로는 붓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소근육 과 대근육 발달과 손과 눈의 협응 작용을 하게 된다.

12) 서봉연, 이순형 , 『발달심리학- 아동발달』, (서울 중앙 적성 출판사 2001) , 재인용

dCollection @ chosun

4세아는 유아기중 가장발달이 왕성한 매력적인 시기이다.[13] 성인의 약 80%에 달하는 대뇌발달은 지능의 발달과 함께 기능의 발달 끼지도 촉진한다. 그리하여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걷기운동이 성인과 거의동일한 정도의 걸음걸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달린다든지 뛰어오른다든지 율동적인 스킨쉽 등의 기본적인 신체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4세에 운동을 하지 않은 유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달련된 아이들 사이에서 뒤쫓아 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5세아는 정 유아기를 통하여 심신의 발달이 다 같이 안정되어 조화를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마무리 단계인 것이다. 5세아는 급격하게 발달하는 정신적 발달에 맞추어서 신체적 운동에 적합한 체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조복희 , 『아동발달 』, (서울 교육 과학사 1999), 재인용

dCollection @ chosun

4세		특징	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
신체발달영역	대근육운동발달	*발을 번갈아가며 계단을 내려올 수 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방향을 전환 할 수있다. *30센치 높이에서 뛰어 내릴 수 있다. *상대방에게 공을 던질 수 있고 상대방의 공을 받을 수 도있다. *혼자서 그네를 탈 수 있다. *평균대위를 바르게 걷는다.	*미술활동을 통한 놀이 위주가 가장 좋은 시기 이다. *그림자 밟기와 몸짓놀이 등이 유용한 시기 이다.
	소근육운동발달	*단순한 형태를 잘라서 풀로 붙일 수 있다. *블록이나 레고를 갖고 간단한 모형판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주어진 두 선의 밖을 벗어나지 않고 가운데 선을 그을 수 있다. *연필을 바른 자세로잡는다. *가로 직선과 곡선을 자를 수 있다. *장난감 용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이거나 풀 수 있다.	*크레파스, 연필 등을 바르게 잡는방법을 알려준다. *자르고 붙이는 활동을 즐긴다. *바르게 자르기, 똑바로 풀칠하기같은 성인의 간섭은 활동에 흥미를 위축 시킨다. *사람을 둘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그린다.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dCollection @ chosun

5세		특징	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
신체발달	대근육운동발달	*미끄럼타기, 그네타기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0센티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던지고, 잡고, 치는 행동을 잘 할 수있다. *정글짐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 *철봉에 20초 정도 매달릴 수 있다.	*대근육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소근육운동발달	*자신의 이름이나 아는 숫자를 쓸 수 있다. *숫자나 글자를 보고 따라 쓸 수 있다. *잡지의 그림을 잘라 본다. *색종이로 비행기나 배모양을 접으려고 한다. *도움없이 30~40조각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	*오리기, 접기, 바느질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 하도록 한다.

dCollection @ chosun

영역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해본다. *지시에 의해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끼운다. *유치원 등교 시 또는 외출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긴다. *보호 없이도 혼자서 놀러간다. *잘못 하였을때 사과 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 허락을 구한다. *또래 친구와 협동 놀이를 한다. *다른사람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거나 지키려고 한다. *옳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판단을 할 수 있다. *남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여아가 좋아하는 놀이가 서로 엄격히 구분된다.	*미술재료와 도구를 친구와 나누어 사용할 때 격려 해 준다.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같은 활동을 제시한다.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2) 사회성 발달

유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미술활동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아울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유아는 자신이 독특한 존재임을 알아가면서 자신은 누구인지 타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다. 미술활동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고 타인의 물건 권리 생각에 대한 존경심도 갖게 한다.

4,5세	특징	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
사회성발달	*지시가 없이도 손수건이나 휴지로 코를 닦는다. *수저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전화를 통해 인사할 수 있다. *밤중에 깨우면 소변을 본다. *자기전에 또는 깨어났을 때 *엄마, 아빠에게 인사말을 한다. *지시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바른 행동을 보인다. *바지나 옷에 부착된 벨트를 풀거나 뺀다. *세수나 손발을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한다.	*또래와 협동놀이를 하므로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시해주며 격려한다.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병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또한 물건을 사용할 때는 나눠 사용했던 자료와 도구들을 스스로 잘 정리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게 된다. 아울러 다른 유아가 미술작품에 대해 발표를 할 때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다르더라는 것도 이해하게된다.

dCollection @ chosun

3) 정서 발달

아동은 자신의 슬픔이나 즐거움, 행복, 자신감 ,두려움 ,좌절감, 환성, 분노 등의 감정을 미술활동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미술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긴장이 완화되고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종종 아동 들은 자신이나 가족 친구들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미술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아동들은 미술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정신건강이나 감정에 표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미술활동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현상에 도움이 된다. 자아개념이 낮은 유아들은 다른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성공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미술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며 학습은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유아기의 정서의 일반적 특징은 유아기에 접어들면, 어린이들이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과 표현방식이 변화된다. 그 특징을 보면 어떤 특정한 정서 상태의 지속시간이 짧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기억, 자제력으로 인해 어떤 정서 상태는 때로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첫 번째 감정표현으로 공포에 대해 살펴보자면 공포는 4세 때 공포가 가장 심해지며 이유 없는 공포가 많다. 5세에는 별로 무서움을 타지 않다가 6세에 공포심이 많아진다. 즉 4-6세에는 낮에 무의식에 억압되었다가 공포가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악몽을 많이 꾼다.

dCollection @ chosun

그렇다면, 유아기가 끝날 무렵에는 공포가 증가하는 이유는 상상력발달로 도깨비, 귀신 등의 가상적 대상에 대한 공포를 갖고 학습에 의 한 공포심을 갖게 되며 유아의 경험세계가 전보다 확장되면서 잘못된 조건형성으로 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분노는 하는 일을 방해 받거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거나 요구를 거절당할 때, 무엇을 강요하거나, 빼앗겼을 때 이에 저항하는 정서이다. 표현으로는 떼쓰기, 반항, 불순종, 폭발적 행동, 고집부리기, 침묵, 발로 차기 등이 있고 발언으로는 바보, 밥통, 똥개 등을 말한다. 분노의 요인으로는 신체적으로 아플 때, 배고플 때, 졸릴 때 등이며 심리적으로는 두렵거나 무서울 때, 흥분했을 때 등이다. 또한 학습의 영향으로 화를 잘 내는 부모의 아동이 화를 잘 낼 수 있다.

질투는 3-4세 때에 질투가 가장 심하다. 동생이 생기고 자기주장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울음으로 빈번하게 표현한다. 울음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 반응으로 울음은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울음은 신체적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에서 점차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5세에는 울음을 참을 수 있고 마침내 울음소리를 삼키며 눈물만 흘릴 때도 있다. 기쁨과 애정에서 기쁨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는 영아기 때의 생리적인 것, 감각적, 운동적인 것이다가 유아기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변화된다. 즉 자기의식이 분병해지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과시할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며 이 기쁨은 웃음을 수반하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또한 인지능력의 발달로 이해력이 발달되면 익살맞은 몸짓이나 농담 등에 대해서도 웃게 되고 3세경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나 동작을 보고 좋아 웃는다. 신기한 자극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이 신기함도 전도가 지나치면 공포를 야기 시킨다. 기쁨은 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고 귀여워하고 쓰다듬어 주면 유아는 기쁨을 느끼고 웃으면서 자신의 애정도 표현한다. 4-5세경에는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고 보살펴준다.

애정은 상호적인 것이므로 유아기에는 특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가끔 양모를 더 따르는 경우도 잇다. 애정을 많이 받는 유아는 그렇지 못한 유아보다 정서적 , 신체적 발육이 빠르다고 한다.

4세	특징	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
정서발달영역	*노래나 율동을 하는것을 좋아한다. *친구들 중에서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가 분명하다. *좋아하는 티비 프로가 있다.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교통놀잇감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작업을 전시하기를 좋아한다.	*유아의 작품을 전시 해 준다. *스스로 전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의 높이를 유아의 키 높이에 맞추어 준다.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병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dCollection @ chosun

그 이유는 정서를 통제하는 대뇌의 부위는 시상하부인데 여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성장 호르몬을 분비 시킨다. 그러므로, 애정을 많이 받는 유아는 유쾌한 정서적 흥분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 정서 발달이 촉진되고 그에 따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 성장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지게 되어 신체발달이 촉진한다. 그러나 애정이 결핍되면 이 모든 호르몬 부니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연쇄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서 발달만이 아니라 신체까지 왜소해 진다.

5세	특징	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
정서발달영역	*음악에 밪추어 율동적으로 움직인다. *상황이나 경우에 알맞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자신도 어른처럼 독립적인 인간 대접을 받을 때 즐거움을 표현한다. *이 시기에 가장 듣기 좋아하는 동화는 명랑동화이다. *자연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를 즐겨 듣거나 읽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20~30분 정도 주의집중을 보인다. *놀이 또는 작업시에 자신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하기를 바란다.	*동화를 듣거나 읽은 후 미술활동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병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dCollection @ chosun

4) 인지발달

미술활동은 우뇌를 발달 시키므로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해서 올바른 인지발달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미술자료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료의 특성을 알게 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표현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4세		특징	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
인지발달영역	대물인지 및 대상영속성	*신체 부위의 이름을 내면 모든신체 부위를 지적 할 수 있다.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증가 하므로 교사는 그림에 기록을 표시해 주시고, 기록을 읽어주어 표상 능력의 재생을 도와준다. *창의력이 장점을 이루는 시기로 자유로운 표현을 격려한다.
	표상행동 및 예측 행동(인과 추리)	*그림중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드는 작품이나 주요 그림의 특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0조각의 퍼즐 조각을 완성 할 수 있다.	
	분류개념	*두 가지 준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묶을 수 있다. *개인 소유물과 공동 소유물을 구분 할 수 있다. *세 가지 색으로 된 물체를 주면 완전히 분류 할 수 있다. *집안의 물건 중 가족의 소유물을 바르게 구분 할 수 있다.	
	공간개념	*상대방의 오른쪽-왼쪽,집에서 가까운 곳-먼 곳, 그리고 유치원과 집의 내면 등이 잘 되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병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dCollection @ chosun

미술활동을 할 때에 유아의 생각 학습 등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유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유아들의 그림과 그렇지 않은 유아의 그림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개미를 그리기 위해서 개미에 대해서 관찰해야 하고 무엇으로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등을 구상해야 한다. 미술활동을 할 때는 유아가 시작한 활동에 대해 집중을 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술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은 색의 개념 크기 형태등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위 아래 옆 왼쪽 오른쪽과 같은 공간개념도 터득하게 된다. 아주 작은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여 세밀하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미술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상징과 구체적인 물건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여 어떤 물건에 대한 상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dCollection @ chosun

<table>
<tr><th colspan="2">5세</th><th>특징</th><th>아동미술교육의 시사점</th></tr>
<tr><td rowspan="4">인지발달영역</td><td>대인 및 대영성
물지상속</td><td>*10-12 종류의 색깔을 안다.</td><td rowspan="4">*단순한 기능을 강조하는 미술 교육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감정,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다양한 입체 표현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고 격려해준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계획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활동의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 여긴다.</td></tr>
<tr><td>표상
행동
및 예측
행동</td><td>*점토나 찰흙으로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그림으로 표현한다.</td></tr>
<tr><td>분류
개념</td><td>*두가지 준거를 동시에 이용하여 시행착오 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세가지 색깔 또는 세가지 도형을 바르게 분류할 수 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안다.</td></tr>
<tr><td>공간
개념</td><td>*지시에 따라 공간을 이동 할 수 있다.
*주어진 그림 속에서 지시한 위치의 물건이나 그림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마주보는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따라한다.
*친구의 제위치를 정확하게 안다.</td></tr>
</table>

출처 : 이영석(1995). 한국아동의 연령병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미래 아동교육 학회지. 제1권

dCollection @ chosun

5) 창의성 발달

아동 들은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어떤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과 다른 독창적인 사고를 하면서 창의적인 태도와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 어린 영아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를 새롭게 풀어나가려고 한다. 성인기 보다는 유아기 시절에 창의적인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창의성을 잘 키워주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술 활동은 그 어느 활동보다도 유아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에 가장 적합한 활동이다. 특히 상상력이 뛰어난 유아들에게는 미술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 미술활동은 개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아들로 하여금 탐색하고 실현하고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술들은 창의성에 큰 도움이 된다. 미술활동은 스스로를 드러내 놓는 적극적인 표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표현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즐거운 자기표현은 창의성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림을 그리거나 진흙놀이를 즐기고 무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세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연속된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14]

---

14) 김병철, “ 미취학 아동의 미술활동이 전반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 (석사 학위 논문, 영남대 논문,교육대학원, 2004), pp13~30

dCollection @ chosun

Ⅳ.프뢰벨 미술 교육과 놀이

1. 프뢰벨의 놀이에 대한 견해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외부의 사물과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하게 된다. 프뢰벨은 아동기의 단계를 내적인 것에서 외부적으로 펼치는 자발적 표현의 시작 단계임과 동시에 사물을 접하며 인식하고 인지하는 기본적 파악 단계라고 보고 있다. 아동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주위의 모든 사물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며 시야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 이라든가 명칭 또는 다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 사물의 성질과 내적인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단계로 발전하며 지식의 확대가 일어난다. 아동들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놀이가 되며 지식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이라 하였다.

어른이든 아동이든 든 간에 인간은 지식을 형성 확대시켜 나간다. 유아들이 모든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 하려는 것은 충동이긴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면 작품에 있어 신을 인식하게 되고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가게 되며 지식의 확대가 일어난다. 따라서 아동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은 유아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들의 그림도 주위의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중요한 놀이가 되며 그들의 그림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유아들의 놀이를 통해 우연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놀이가 단순한 외부현상을 감각적으로

dCollection @ chosun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와의 결합으로 인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표출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 놀이 그 자체는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며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을 찾고 또 그것을 발견하려는 욕구이다. 어린이가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세계를 이해하여 나가며 지식의 형성 및 확대되어 가는 것이 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놀이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크다.

아동들은 일상적인 일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세계를 나타내려 한다. 놀이는 이러한 자기표현의 활동을 하려는 데서 생성 한다는 것이 자기표현설 이라고 정의한다. 놀이는 이 단계의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 소산이며 동시에 인간 생명 전체의 인간과 모든 사물 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것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연의 원형이며 모사 이다. 이렇듯 프뢰벨은 자기활동의 완전한 모체로서 놀이를 보았고 많은 놀이들은 힘의 순수한 표현 이라는 목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프뢰벨은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신성을 개발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창조적 자기 활동을 강조하여 놀이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프뢰벨은 감각기관과 유아의 신체와 팔다리를 이용한 외형적인 활동을 통하여 아기의 내적인 것을 외부에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젖먹이의 단계가 끝나고 유아기의 단계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즉 젖먹이 단계를 지나 말을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것을 외부에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유아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는 주변세계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이들을 이해하는 단계이므로 사물을 정확하게 직관하고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시기에 놀이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표현의 발달, 즉 이 시기의 인간 발달의 최고 단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놀이란 이미 말 자체가 표시하고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말해 주고 또한 아동의 내면에 있는 것 자체의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놀이야말로 직접적으로 생명에 작용하고 생명을 형성함과 동시에 도덕상으로 여러 가지의 덕을 깨닫게 하며 배양시켜 나간다고 프뢰벨이 주장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유아의 활동이나 내부에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는 자기활동의 충동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놀이를 통해서 유아의 여러 가지 자연적 충동 및 본능을 지각하고 판단력의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도록 하고 한층 효과적인 여러 가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들은 흔히 유아의 놀이를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나 유아의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며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유아의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내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한 내적인 법칙인 것이다. 놀이는 미래 생활의 자원이다. 안에서 인간의 가장 미세한 소질과 내적인 성향이 그대로 전개가 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dCollection @ chosun

이 세상 에서 다시 떠날 때까지의 인간의 전 생활은 이 시기의 인생에 그 원천을 갖고 있다. 부모와 가족과 형제자매와 시민적 사회와 인류와 나아가서는 자연과 신에 대한 장래의 관계는 아이들 고유의 소질과 자연의 소질에 따라서 특히 이 연대의 아이들의 생활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프뢰벨은 유아의 놀이는 미래 생활의 터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발달은 각 단계에서 이륙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이룩하지 않으면 후속하는 단계에서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아기의 중요성을 말한 유아기 적기성과 불가역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단계로서 생활방식의 기초를 올바르게 형성시켜 주어야 하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내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하거나 단계가 아직 구체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식이나 가치관 태동의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 만큼 유아 자신의 내적인 필요와 요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요구에 의한 자기표현이 이루어지는 놀이는 중요하다.

2. 아동발달과 프뢰벨 놀이이론의 관계

프뢰벨의 놀이를 인간발달의 최고의 단계로서 매우 높게 평가 하고 있으며 놀이에 의한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표현과 놀이와 유아들의 생활을 동일 시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놀이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소질과 가장 내적인 정신

dCollection @ chosun

이 발휘되고, 놀이가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며 유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활동이며 동시에 인간이나 대상물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프뢰벨은 이러한 아동의 활동충동, 창조충동, 작업충동을 놀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육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다. 프뢰벨에게 있어서 놀이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의 개발이나 심적 기능의 단계를 넘어서 도덕력의 근원이 된다. 그는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아동들은 놀이를 통하여 자기표현, 외부 세계와의 인식, 힘의 연마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힘의 연마 속에는 신체적인 힘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힘까지도 포함된다.[15)]

여기서 프뢰벨이 놀이를 인간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이유다. 프뢰벨은 인간발달의 초기단계에서 아동들은 놀이를 통하여 자기표현 외부세계의 인식 힘의 연마 등을 이루어간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 힘의 연마 속에는 신체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식적 도덕적 의미에서의 힘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위에는 외형적 활동이든 내적 활동이든 그것은 심리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유아들은 자유자제로 신체를 사용하는 놀이를 통해서 신체적인 힘의 연마가 이루어진 후에 재료를 가지고 놀면서부터 재료의 사용법을 터득하여 재료를 지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아기의 다양한 신체표현 놀이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은 물론 유아의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점차 유아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복잡한 활동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과 도덕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15) 정인숙 ," 인간교육 중심으로 살펴본 프뢰벨의 아동교육" ,
(석사학위논문 효성대학교 1992) , pp28~29

dCollection @ chosun

프뢰벨은 이러한 유아들의 행위를 통하여 형태의 명확한 행동 파악 대상으로부터의 분리 형태의 표현 가능성 형태 자체의 확보 그것을 자유로이 표현하기 위한 팔과 손의 강화와 그것의 능력의 부여들과 같은 발달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영아가 발달함에 따리 단순히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힘의 의지를 연마하는 더욱 다양하고 발전적인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유아기에는 활용자체가 많은 놀이의 목적이 있었지만 소년기의 놀이에는 일정한 의식된 목표가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도 대상과 사상의 순수한 표현에서 순수한 힘의 연마 혹의 힘의 계량 자체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전 한다고 한다. 프뢰벨의 놀이는 그 자발성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러한 기쁨의 경험은 단순한 놀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힘의 의지를 연마하며 더욱 발전적인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 아동은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와 사물의 관계를 맺고 놀이의 사회화의 과정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어린이들은 질서와 법칙을 따르는 공동놀이를 함으로써 질서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공동감정을 기르게 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질서와 규칙을 익히게 된다. 놀이는 유아들의 힘의 순수한 표현이며 놀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힘의 연마함과 동시에 그것을 도덕적인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3. 프뢰벨의 은물과 놀이의 특징

은물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어 주신 은혜로운 놀이선물이라는 뜻으로 1837년에 고안 제작된 교구이다. 이러한 은물이 어린이가 주

dCollection @ chosun

위를 탐색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자연스런 형태인 놀이를 통해 유아의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발달 상황에 맞게 교육되어진다면 그 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물교육이라 하는데 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부분의 활동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전인적 통합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단순한 모양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들이 자신의 발달에 맞추어 점점 놀이를 발전시켜나가면서 표현이나 활동의욕을 만족시켜 생각하는 힘과 사물을 창조해 내는 힘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16]

프뢰벨은 1837년 유치원을 설립한 후 유아의 자발학습을 가능케 하고 창의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은물과 작업을 고안하였다. 글도 쓰기 전에 그리거나 낙서 등에 몰두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며 두려움 없이 달려들어 혼자서 해 보려는 어린이들은 쉽게 볼 수 있다. 프뢰벨은 이미 만들어진 놀잇감은 어린이에게 창의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이유에서 기피하였다. 예를 들어 로봇은 로봇에 관한 표현밖에 할 수 없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더 많은 창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의 상징적인 활동으로 이 지팡이는 낚싯대 총 다리 회초리 요술지팡이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16) 서석남 , 『인간교육』, (서울 S.F. M 연구소, 2003) , p.167

dCollection @ chosun

그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쌓아보고 짓는 놀이를 계속하는 것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을 닮은 어린이들의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표현하고자 하는 요구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놀이와 작업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프뢰벨은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창조적 자기활동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즉 신성의 발현을 돕고 신장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하여 만들어진 재료가 은물과 작업이다. [17]

프뢰벨의 놀이기구는 자연 즉 우주를 단순화 시킨 것으로서 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며, 은물의 제작 동기를 은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지 외적 신체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활동과 같은 내적의 활동의 향상과 발달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즉, 프뢰벨은 놀이의 건강적인 측면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지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은물과 작업을 고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은물과 작업의 자료들은 어린이들의 운동적 표현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노래와 동작을 포함하는 협동놀이와 집단 게임을 발달 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게임과 놀이는 대부분이 은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은물은 모두 형체, 점, 선, 면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재구조라는 종합의 영역이 추가된다.

배열은 3차원의 세계 즉 형체이며, 2차원의 세계는 면, 1차원의 세계는 선 순으로 배열된다. 이것은 감각의 세계를 관찰하는 정신구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이념의 세계로서 동일점에 해당된다.

---

17) 김성순 , "은물교육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석사 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p .18

dCollection @ chosun

따라서 은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정신의 미분화된 통일체에서 분화된 통일체로 움직이는 것처럼 은물도 분화된 통합을 통해 미분화된 것에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방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물을 사용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감각적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직관 교육인 반면 프뢰벨은 공, 육면체, 원기둥은 페스탈로치처럼 그 공에 대해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은 어린이에게 분리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통일의 개념을 제공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즉 프뢰벨은 감각적 관찰에 의해서 형성된 즉각적 지식 보다는 실물 혹은 은물의 형식적 성질에 의해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상징적 지식에 관심이 있었다. 프뢰벨이 고안해 낸 은물은 20여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은물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그중에서 구체화된 기본적인 형태의 10종류는 은물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작업으로 그 나머지는 직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4. 은물교육의 내용

1) 제 1 의 은물 : 구

제 1 은물은 연한 털실로 만든 6개의 공이다. 이공의 색은 빨강, 오렌지,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이다. 어린이에게 주는 놀잇감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가 이상적인데 대표적인 것이 공이라 한다. 프뢰벨에 의하면 공은 완전한 하나의 전체이며 삼라만상의 초상이다.

dCollection @ chosun

공 자체는 어린이에게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독특한 매력과 끊임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첫 번째로 주어져야 함이 더 할 나위 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섯 가지 색의 병렬은 프뢰벨에 의해 최고의 평화, 천지간의 평화, 인간과 신의 평화와 상징이며 불가사의한 미적 통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1의 은물의 목적은 인격을 양성하고 자발활동을 촉진 시키며 아동의 활동성을 만족시키고 아동의 잠재된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감각의 연습을 함으로써 지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2) 제 2 의 은물 : 구 입방체, 원주

제1은물에 이어 연속발전을 가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제2은물이다. 즉, 구와 원주로 구성된 것이며 아동은 부단히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하는 아동에게는 계속하여 새로운 대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구보다는 진보된 놀이기구가 주어져야 한다.

구를 회전시키면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원주를 회전 시키면 그 회전 형태 속에 원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인 조화를 가진 것이 제2의 은물의 특이한 점이다.

3) 제3 의 은물 : 구, 입방체, 원주

제 3 의 은물은 제1은물이나 제2은물에서 발전된 것으로 어린이의 발달적 요구에 의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이 은물의 특징은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면서 노는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이와 같은 놀이를 통해 사고력, 예상능력, 수 개념 및 미적 감각 등을 양성하고 자발활동을 활발히 해서 창조 활동을 자유로이 신장하고 감정을 미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해와 종합을 함으로써 부분과 관계를 터득하게 된다. 전체를 종합할 때 조그마한 입방체 하나만 없어도 본래의 모양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은물은 지적인 면이고 정신적인 면으로부터 유아의 발달에 따라 그 자발 활동을 촉구하고 미적 감정과 창의력이 풍부한 인간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내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유아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알맞은 은물인 것이다.

4) 제 4 의 은물 : 직육면체

제 4은물은 8개의 직육면체로서 이것은 여러 가지 건축물놀이에 쓰인다. 이 은물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다르다. 이것은 입방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시키는 경험이 되어 앞으로 차츰 복잡해지는 입방체의 분해를 이해하는 한 단계가 되는 것이다. 유아의 심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욕구도 차츰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며 사고력도 상상력도 현저히 발달해 간다. 이와 같이 왕성한 발달기에 있는 유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키워주어 이것을 교육적으로 인도하여 자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감정을 미화시켜 유아의 완전한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5) 제 5 의 은물 : 정육면체

수직선과 수평선은 곧바른 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밖에는 상호 대립의 관계다. 그 대립은 일반적인 발전 법칙에 의하며 매개가 요구되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 사선이어야 한다고 프뢰벨은 말했다. 제5은물의 특징은 3이라는 수를 바탕으로 기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6) 제 6 의 은물 : 직육면체

서로 다른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것이나 육면체요, 면은 사각형, 각은 직각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재료를 써서 복잡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기란 오히려 재료를 써서 멋진 작품을 만들기보다 어렵다. 따라서 제6은물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멋진 건축을 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들어있다. 단순한 재료를 써서 이상적인 건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6은물은 건축으로서는 매우 진보된 것이다. 제6은물은 이렇듯 어려운 조건하에서 건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이에 의해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7) 제 7 의 은물 : 7가지 색상의 도형

7가지 종류의 색 조각으로 갖가지 도형의 색관 500여개가 있다. 이는 입체로부터 여러 가지 면은 꺼내어 추상적인 형태를 알게 해준다. 모양과 색 분별력을 통해 어린이의 미적 감각과 색채감각을 균형 있게 발달시킨다.

dCollection @ chosun

8) 제 8 의 은물 : 막대

길이가 다른 5종류의 막대가 125개씩 들어있다. 이는 선의 개념을 가르쳐 주면 분해해서 얻은 추상적인 직선을 알게 해 준다.

9) 제 9 의 은물 : 고리

지름이 3센티, 4.5센티, 6센티의 고리와 반원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0 개씩 들어있다. 면을 분해해서 얻은 추상적인 곡선을 알게 되며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능력을 알게 한다.

10) 제 10 의 은물 : 원기둥 조각

선을 한번 더 분해해서 얻은 점을 알게 해 주며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점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한다.

dCollection @ chosun

Ⅴ. 프뢰벨 미술교육의 창의력 신장과 실제 적용

1. 창의성의 정의와 필요성

아동은 새로운 것에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가지며 발견하기를 좋아하고, 그 호기심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놀랍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 아동의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시키고 창의성이란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학자 들을 통해 꾸준히 연구 되어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지도안 들이 연구되어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

창의성의 정의를 내리자면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 또는 창의적인 성취로 이끄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한다. 즉, 개인의 독특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내부의 힘으로 기존하는 요소들로부터 새로운 생각이나 참신한 통찰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정의를 내리는 방법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특별한 재능으로서 창의성보다는 자기실현의 의미로서의 창의성으로 간주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천재의 개념으로도 일컫는 특별한 재능으로서의 창의성은 소수에게 국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것이므로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dCollection @ chosun

하지만 학교 교육은 무엇보다 인성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창의성을 자아실현의 의미로서 간주할 때 창의적인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무엇을 관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다.

다음과 같이 보자면,

첫째, 케슈탈트 심리학파에서 인지 심리학자들이 다루는 지각과 인지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정의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재구성 하거나 혹은 복수의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새롭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지적인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 성격에 중점을 두는 정의로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창의적인 성향이 없으면 창의적인 산물이 있을 수 없다. 이들의 관심 분야는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 통제의 거부적 태도, 새로운 경험의 개방성, 판단에 대한 자율성 및 모험심, 문제해결을 위한 인내심을 고취 시키는 것이다.

셋째, 최종산물이나 혁신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정의로 어떤 사고로 인하여 모인 집단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 신기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즉 창의성은 결과적 산물 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새롭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 분류로도 살펴보면 창의성이란 인간의 특성과 정의적인 특징이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져 아이디어나 독특한 산물 을 얻어내는 능력이라 정의되어진다.

20세기 중반이루 지금까지도 길포드, 토랜스, 윌리엄스 등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창의성의 정의는 일반적 인 인간중심 설명부터 엄격한 조작적인 정의까지 다양하다. 사회과학 분야나 문 학 및 철학 등에 걸쳐서 제시되는 정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창의성 모델이나 정의 간에 합의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심리학계에서 학자들 간 에 일치된 정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창의성 정의에 있어서도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창의성이라는 심리적 구인은 본질적으로 지능보다 더 복잡한 인간의 고도의 정신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보여 진다.

토랜스, 길포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토랜스(1985)는 창의성에 대해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다른 관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 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창의적 사고란 어려움과 문제를 감지하고 정보에서 틈을 찾아내고 빠진 요소나 잘못된 무엇인가를 찾아내, 이러한 결합에 대해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 그 추측과 가설을 평가하고 검증하며 이것들을 재수정하고 재검증하여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창의성의 정의를 연구를 위한 정의, 예술적 정의, 생존정의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연구를 위한 정의 에서는 과정을 강조하여 정의하였고, 생존정의 에서는 "한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도 않을 때 어느정도 창의성이 요구된다" 라고 설명 하였는데 이는 전쟁시에 생존하기 위해 나타나는 창의성을 요구한다.

dCollection @ chosun

창의성이란 갑자기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전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익숙한 생각들을 새롭게 재정리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과거에 축적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조합, 재결합, 재정리를 창의성의 가장 기본 토대다운 말이라 할 수 있겠다.

2. 작업을 통한 창의성과 아동놀이의 실제 적용

1) 작업 중 구멍 뚫기

프뢰벨의 놀이구조에서 보면 입체에서 면으로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 즉 3차원의 세계에서 이상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어린이는 대상물인 적목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나누었다가 다시 형성하고 그리고 또 다시 부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점과 같은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비록 겨자씨 같이 미세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족해한다. 어린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활동하기를 원하고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다듬고 형성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앞으로 닥쳐올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벅차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프뢰벨은 어린이가 새롭게 자신을 형성해 가려는 시도에서 제 11 작업으로 길을 열어 준다. [18]제 11작업은 점을 구멍이라는 형태로 이해시키는 것으로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제 11작업은 제 10 가베 에서 제시된 점을 근거로 하여 구멍을 뚫어 나간다. 처음에는 폐지 위에 이쑤시개나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나가다가 좀 더 익숙해지면 색지에 모눈종이를 올려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 사선, 십자모양, 곡선으로 작업을 하고 사물의 형상을 종이위에 그리고 그림을 따라 구멍을 뚫어가며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하는 놀이를 하게 된다.

[19]제 11 작업은 사전에 가위, 자, 이쑤시개, 송곳, 크고 작은 바늘과 색지를 준비해야 하고, 구멍을 뚫을 때 색지 밑에 받치는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스티로폼을 필요로 한다. 이 놀이의 목적은 놀이를 하는 동안 사물의 위치나 방향, 거리등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또 위험한 송곳이나 바늘을 사용하므로 조심성이 길러지고, 손가락 근육을 발달시킨다.

어린이는 활동 시에 어른이 한 것을 본보기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5세 정도의 어린이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만드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나 어른은 이미 완성된 예시 작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는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작업하기를 원한다.

---

18) 팽영일, 『유아교육사상의 이해』 , (서울 ,창지사, 1995) p.181
19) 안기현, " 프뢰벨의 놀이의 의미에 대한 연구" ,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1994) pp.18

dCollection @ chosun

간단한 형체를 먼저 충분히 만들어 본 후에 복잡한 형태의 모습을 띄어가는 것이 좋다. 은물수업에서 기하학적 형태를 지각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을 다시 구멍을 뚫는 것으로 반복하게 되면 어린이에게 새로운 논리적 사고가 나타 날 수 있다. 또 어린이는 작업 활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 계획한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교사나 어른은 이 점에 유의하여 어린이와 함께 기성품이 아닌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에서는 재료가 놀이 활동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가 되어야 한다.

구멍뚫기 작업의 효과	*위치, 방향, 거리 등을 인식 시킨다. *소 근육 발달을 증진 시킨다. *점의 다른 형태를 인식 시킨다. *뾰족한 물건에 대한 조심성을 기른다. *논리적 사고를 증진 시킨다. *창의력 및 표현력을 기른다. *손 끝 기술을 익힌다.

2) 작업 바느질하기

프뢰벨은 제 12 작업에서 일상생활에 항상 필요한 바느질 즉 꿰매는 것을 통해서 선을 이해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려 했다. 바느질에 필요한 용구는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 천이다. 바늘은 의복을 꿰매기 위해서 사용해왔다.

dCollection @ chosun

바늘은 유럽 구석기 말 골각제 바늘이 최초로 나타났고 신석기 시대에도 같은 재료의 것이 만들어졌고 금속기 발명과 함께 금속제 바늘이 고안되었다. 꿰매기 위한용도 외에 특히 의복을 여미기 위하여 쓰는 지금의 안전핀과 같은 바늘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경주 분황사 석탑에서 금, 은제 바늘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바늘은 조각난 재료를 연결 할 때에, 형체를 구성 하는 데에, 실용적 혹은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늘은 꿰매는 용도로 사용된 바늘과는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재봉용 바늘에는 손바느질용 바늘이 있다. 이것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며 머리에 실을 끼워 넣는 구멍이 있다. 굵기에 따라서 12호 까지 있고 호수가 작을수록 굵고 길다.

실은 솜 양모 생사 등의 천연섬유나 인견 합성 섬유 등 인공적으로 만든 섬유를 길게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섬유를 가지런히 모아 꼬임을 주어 무한히 긴 섬유 다발로 만들어 일정한 굵기와 강신도를 가지게 가공한 것과 견과 같이 연속된 사조를 제사 공정으로 접속한 것, 또는 비스코스나 합성섬유와 같이 화학적으로 방사하여 연속된 사조를 만들어 이것을 집속, 가연한 것의 총칭이다.

어느 것이나 굴곡성이 있고 균일한 굵기와 연속된 길이를 가진 것으로 주로 직물 편성물의 연료로 쓰이는 목적으로 적당한 강도와 신도를 가진다. 제조방법에 따라 방적사와 필라멘트사로 구분된다.

dCollection @ chosun

방적사는 비교적 짧은 섬유를 방적공정에 의하여 만든 것으며 쓰이는 원료에 따라 면사, 모사, 견방사, 마사와 인조섬유의 단섬유로 만든 스프사가 있으며 다른 섬유를 혼합하여 만든 혼방사가 있다. 필라 멘트사는 누에고치에서 켜낸 천연의 실과 인조 섬유 만든 실로서 방적 법을 쓰지 않고 방사한 무한히 긴 사조로 비스코스, 큐 트라사, 아세테이트 인견사 등이 있다.

가위는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천을 자르는 가위는 날이 매우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주위를 기울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종이나 천을 자르는 것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천은 실에 의해서 짜여진 것으로 면을 이루고 있다. 프뢰벨은 어린이들에게 천과 실의 절묘한 만남에 의한 면과 선의 어울림을 알려주고 이것을 매개하는 바늘로 자연스럽게 만남의 조화를 깨닫게 한다. 여기에서 천과 실이 서로 잘 어울림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바느질은 이 조각난 재료를 연결하는 것인데 연결하는 데는 그 쓰임새에 따라 바느질 방법이 다르다. 즉 가로 세로 홈질 박음질 십자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바느질법을 어린이들이 쉽게 배우기 위해 먼저 색지에 구멍을 뚫어 연습하게 한 후에 천에 실제의 바느질법을 배우게 된다. 이 바느질법을 배움으로써 어린이 들은 수학적인 개념, 특히 순서와 질서 정확성 대칭들을 알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더 높은 단계로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 품위 속에서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만남을 추구하려 한다. 바느질 놀이를 할 때 사용 하는 실은 3원색과 3보색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놀이의 처음에는 단순한 바느질에서 점차 익숙해지면 복잡한 바느질로 옮겨 가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바느질 하기 작업의 효과	*실, 천, 바늘 등의 용구 개념을 알게 하고 그 쓰임새를 알게 한다. *홈질, 박음질, 십자수 등의 바느질법을 익힌다. *가위의 사용법을 알게 한다. *매음새의 개념을 인식 시킨다. *조화에 의한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 *수학적 개념을 인식하게 한다. *순서, 질서, 정확성, 대칭을 알게 한다. *1차색과 2차색을 알게 해 준다. *사고력과 지각력 창조력이 발달 되게 한다.

3) 선 그리기

프뢰벨은 그리기를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프뢰벨은 인간교육에서 그림 그리는 연습은 모눈종이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다. 인간의 가르마 선과 가슴의 선은 수직과 평행이다.

dCollection @ chosun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형태를 직관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직과 수평을 매개로 하여야한다. 비록 무의식적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이 두 방향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과 사고의 힘에 의해 반복하고 두 방향을 단계적으로 그리게 되면 모눈 모양은 우리가 직관한 형태를 더욱 잘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모눈에 의해 표현하려고 하는 형태를 축소 또는 확대하고 형태의 방향에 상호균형을 유지하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변형, 즉 사선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들이 발생하게 된다.

프뢰벨은 그리는 과정에서 형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우고 표현하기 위해 전광판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는 교육과정에서 정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은 수직선을 긋는다. 그리고는 '나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라고 하고 어린이가 '수직선을 그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어린이에게 수직선을 그어 보도록 한다. 계속해서 한배, 두배, 세배, 네배, 다섯 배의 수직선을 긋게 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그 다음은 수평 등으로 단계를 높여간다. 프뢰벨은 그리기를 3단계로 나누었다. 즉 준비과정, 본 과정, 그림 마지막 과정이다. 준비과정에서는 모눈종이에 수평과 수직을 그리게 하고 이를 축소, 확대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dCollection @ chosun

선 그리기 작업의 효과	*다양한 선을 경험하게 한다. *축소와 확대에 의한 사물표현 기술을 익힌다. *수직, 수평, 사선을 그리는 기술을 익힌다. *대칭, 곡선, 반원, 원의 표현법을 발달시킨다. *사물을 경험하게 한다.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향상하게 한다. *사고력, 집중력, 창의력을 발달시킨다. *손의 유연성을 향상 시킨다.

4) 색칠하기

프뢰벨은 어린이에게 색과 색의 관계를 알도록 하고 색을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위가 모두 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순수한 색, 고유한 색에서 점점 혼탁 되어지는 색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3,4,5세경 에는 여아는 빨간색 남아는 파란색으로 시작된다. 6,7세 경에는 순수한 색인 빨간색, 초록색 등에서 순수한 색이 속으로 흡수되는 검은색, 진한색 등으로 경험시키는 것이 좋다. 또 어린이가 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형태에 색으로 메우기를 즐겨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힘이나 소질 또는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어린이는 삶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즉 어린이 스스로 생명을 느끼고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어린이는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일깨우기 좋아한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드리워지는 빛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조금은 진하게 혹은 엷게 된다. 그러므로 색과 빛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색과 빛은 삶의 활동, 삶의 승화, 삶의 변화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색과 빛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상의 빛이며 동시에 존재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현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린이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빛이 형태 속에 침투하고 흡수 되어 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감하게 된다.어린이의 색에 대한 감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프리즘을 통해 햇빛 받아 분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색칠하기는 형태로 표현 되어 그림에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메워 나가는 작업이다.

단순한 그림에 색칠하기가 익숙해지면 동물이나 식물 등의 다양한 형태에도 흥미를 보이게 된다. 이때 어린이에게 동식물의 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함으로써 신비로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게 한다. 또, 색칠하기가 단계에서 다양한 색과 다양한 선으로 이루어진 사물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어린이의 신체와 정신이 많이 향상된다. 즉 손놀림이 자유스러워지고 사물을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과 분석력이 생기고 나아가 판단력과 창의력이 발달하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사물을 보고 각 사물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느낌을 끄집어내어 손놀림을 통해 그리기 기초방법을 익혀 나가고 거기에 색을 입힘으로써 그들의 완성된 느낌이나 표현을 점차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는 작은 돌 하나의 형태와 색에서부터 커다란 사물의 형태와 색에 이르기 까지 모두 중요하고 소중하다. 서로 양분되어 있는 형태와 색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린이로 하여금 주위 사물의 관찰을 통해 직관하는 것을 계속하게 한다면 그 결과 자연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 자신의 생명을 고양시킬 수 있다.

색칠하기 작업의 효과	*색을 경험하게 된다. *면에 색칠하는 기술을 익힌다. *사물의 형태로 지식을 얻게 한다. *과학의 세계에 눈뜨게 한다.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향상 시킨다. *사고력, 집중력, 창의력을 발달 시킨다.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키운다.

5) 엮기

양복이나 바구니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실이나 가죽 대신에 종이를 사용해 작업한다. 세로의 선, 가로의 선을 짜 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모양이 될까 하는 것을 배워 간다.

dCollection @ chosun

엮기에는 종이끈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가며 작업한다. 가장자리는 자르지 않고 가운데 부분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세로 또는 가로로 자른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과 다른 색의 종이로 종이끈을 만들어 짜기 활동을 한다. 프뢰벨은 몇 권의 책이 되도록 짜기를 만들어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재료는 종이 끈,리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작업에서는 어린이에게 즐겁게 수 개념을 획득하게 하고 손의 민첩성을 길러준다. 색에 대한 개념도 형성할 수 있다.

엮기 작업의 효과	*엮고,짜고,뜨는 개념을 알게 한다. *수학적 사고를 기른다. *색에 대한 감각을 발달 시킨다. *간단한 끈으로도 선과 같은 형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한다.

6) 종이접기

이 작업은 종이를 꺾어 접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종이접기는 종이 한 장으로 우주의 모든 원리를 포함하는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다. 프뢰벨은 한 장의 종이가 이토록 수천가지의 다른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dCollection @ chosun

한 장의 종이 평면을 접어서 면이 둘로 구성되고 이를 두 번 세 번 접어 감에 따라 그 면이 수없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종이가 변화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힘이며 풀리지 않는 커다란 수수께끼 이때는 틀림이 없다. 8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종이를 사용해 왔고 또한 종이접기를 해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드 다 빈치와 빅토르 위고도 종이접기를 즐겨 했다고 한다. 프뢰벨 역시 시간이 나면 자신이 만든 상자에 종이를 접어 한통한통 차곡차곡 채워 갔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 프뢰벨은 종이접기가 인간교육을 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과목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놀이체계에서 열다섯 번째로 종이접기가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프뢰벨이 고안한 종이접기는 그가 늘 생활주변에서 교육의 소재를 찾듯이 접기를 위한 재료, 즉 종이도 일상생활 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접기의 용지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긴 직사각형, 정삼각형, 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마름모, 정오각형에서부터 십 육각형, 원, 반원 등을 한계로 한다. 종이접기는 용구나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실시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거나 자연에서 관찰한 사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정확성, 중심력, 치밀성,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등을 길러 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종이접기는 과정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종이접기는 인간의 제 2의 두뇌라고 하는 손을 사용하여 놀이를 한다.

dCollection @ chosun

손가락을 움직여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정신과 내면의 힘을 밖으로 표현하므로 정서적 이면서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창의성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기하학적으로 접어서 선과 면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연후에 상상과 모방에 의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연후에 상상과 사고가 결합된 훌륭한 형태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과학에서 요구하는 윤리성과 예술에서 요구되는 과학에서 요구하는 윤리성과 예술에서 요구되는 감각을 모두 필요로 한다.

프뢰벨은 종이접기를 통해서 어린이의 정신건강도 증진 시키려 했다. 즉 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자폐증, 정신병 등의 재활요법으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프뢰벨은 종이접기를 어린이가 하는 동안 어린이가 의도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 즉 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대각선을 따라 반으로 접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갖는 성질이나 그 삼각형의 넓이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비교에서 얻게 되는 기본 도형의 성질과 같은 개념적 지식을 얻게 된다. 또, 의도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접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정확하게 접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와 같은 논리성이 개제되어 있는 과정적 지식을 얻게 된다.

즉 수학적 양질의 능력을 종이접기라는 흥미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20)어린이들은 공감각과 기하학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의해 그들 자신의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게 된다. 학습 심리적 측면에서도 종이접기는 수학학습을 위한 흥미를 더해 줄 뿐 아니라 하나의 모양이 완성될 때 까지 집중한 상태에서 문제해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완성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것은 모두 어린이가 학생이 되었을 때에 경험하여야 할 심리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들이며 이들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종이접기가 갖고 있는 수학교육의 요소를 환경적 요인을 기초로 한 비형적 수업 모델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종이는 재질이 부드러워 기분을 온유하고 평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종이와 가까워지는 생활을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 종이접기에 의해 어린이들이 자연물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또 내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조형하기를 바란다.

종이접기 작업의 효과	*종이 한 장의 가치를 알게 한다. *종이의 평면과 선을 이해한다. *종이 접는 과정에서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정확성, 주의력, 친밀성을 기른다. *종이 접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른다. *손가락 근육을 발달 시킨다. *정서적, 창의적 작품을 만들어낸다. *상상과 사고가 결합된 형태를 창출 시킨다. *어린이의 건강한 정신을 이끌어낸다. *수학적 지식, 즉 개념적 과정적 지식을 이끌어낸다.

20) 장현우," 프뢰벨의놀이이론고찰 "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5) pp6~9

dCollection @ chosun

7) 자르기, 붙이기

이 작업은 종이를 엮고, 짜고, 그리고 접는 과정에 이어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것이 주제이다. 종이를 자르는 것은 분해를, 종이를 붙이는 것은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보다 명확히 알게 한다. 동시에 가위의 사용법과 풀을 사용해서 붙이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종이 자르기는 어린이가 가위를 다뤄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고 적용한 작업이다. 프뢰벨은 어린이들이 종이자르기를 할 때는 목적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적 없이 작업을 하면 발달, 성장, 진보가 오게 된다. 붙이기는 먼저 만들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고 연필로 모눈종이에 기초 도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도안을 그린 종이에 다른 종이를 잘라 풀을 칠하고 한칸 한칸 정확하게 붙이려 한다. 자르기와 붙이기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하고 완성된 것을 보게 되면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이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 증진 된다.

자르기, 붙이기 작업의 효과	*한장의 종이를 잘라서 분해를 한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안다. *가위 다루는 법을 안다. *사고력을 기른다. *자르기와 붙이기를 인식한다. *자른종이를 붙이는 과정을 안다. *자신감을 가진다. *창조력, 집중력, 지구력, 인내력 등을 기른다. *조형작업을 인식한다.

dCollection @ chosun

(8) 콩 세공

점과 선으로 입체의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구멍 뚫기 작업에서 평면에 점을 뚫으며 출발한 일련의 작업이 다시 입체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막대를 잇는 콩을 점으로 해서 입체적인 공작활동을 통해 2차원,3차원의 모양을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콩 세공 작업은 말린 콩을 물에 12~18시간 담갔다가 얇고 둥근 막대기에 꿰면서 구성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료는 콩, 점토, 코르크, 막대, 철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간단한 것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작업으로 옮겨 가며 활동한다. 즉 처음에는 나무 막대 하나에 위치를 바꿔가며 콩을 하나 꿰어 보고 다음에는 여러 개를 꿰면서 점의 위치를 확인하며 놀다가 마지막에는 삼각, 별모양, 십자가 등을 만들어 본다. 이것들이 익숙해지면 정육면체 등 입체를 만들어 보며 논다.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정육면체, 사면체, 육면체 등을 비눗물에 담궜다가 비눗방울 사이로 스트 로우를 넣어 불면 재미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이는 측면, 보이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경험 할 수 있어 어린이에게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 활동으로 공간개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활동은 어린이의 지적 능력을 훈련되며 특히 기하학적 개념이 길러지기 때문에 논리성이 발달된다.

콩 세공 작업 효과	*점과 선의 연결로 새로운 형태가 형성됨을 인식한다. *점의 위치를 알게 한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에 의해 면이 되고 면에 의해 입체가 만들어 짐을 알게 된다. *기하학적 개념을 인식 시킨다.

dCollection @ chosun

9) 판지공작

얇은 종이 세공 또는 판지 공작이라 한다. 이 작업에서는 이미 2은물에서 경험했던 구, 원기둥, 정육면체 등 결정체 이론에 의해 무한히 발전되는 각 도형들을 전개도에 의해 분해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는 조립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전개도란 입체도형의 표면을 적당히 잘라서 평면위에 펼쳐놓은 도형이다. 프뢰벨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물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궁금해 하는 어린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은물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구의 모습을 어린이가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프뢰벨은 종이접기, 자르기 등에서 지속적으로 경험시키고,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구의 펼친그림 그림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평면도 이다. 평면도의 작은 조각들을 파레로 이어 붙여 나가면 구에 가까운 다면체가 만들어진다.

원기둥의 펼친그림을 보면 곡면과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곡면을 펼치면 직사각형이 된다. 프뢰벨은 판지 공작을 통해서 스스로 종이접기에서 접어놓은 도형들이나 그들의 소지품들을 넣어 두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어린이는 늘 타인에 의해 공급만 받아 오던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거세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과 충동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 발달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dCollection @ chosun

판지공작 작업의 효과	*판지로 상자를 만든다는 것을 안다. *전개도를 인식 시키고 안다. *겉과 속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구의 펼친 그림을 인식한다. *평면의 조각을 모아가면 다면체가 된다는 것을 안다. *논리 수학적 개념이 발달 된다. *추리력이 발달된다. *부분과 종합의 관계를 안다. *창의력이 발달 된다.

10) 모래놀이 I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종이에 의존해서 작업해 왔다면 어린이가 모래를 손에 직접 묻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다. 모래는 응고성이 강하지 않아 물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뢰벨은 작업의 재료로 모래를 선택했다. 이는 프뢰벨이 어린이의 심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는 만든 것을 금방 부수고 또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모래와 흙을 만지는 것은 정서발달 및 언어발달 증진에 필수적이다. 모래는 온 세상 사물의 기초적 자연상태 이므로 전 연령층에 걸쳐 모래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어린이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양한 탐색을 하게하고 이런 탐색과 발견,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 끝에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된다.

dCollection @ chosun

손은 밖으로 나온 제2의 뇌라는 말이 있듯이 손으로 느끼는 감각은 시각적인 감각보다 사물에 대한인지를 보다 구체화시켜주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래는 고정된 형태가 없어 어린이들이 만지는 대로 변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욕구불만의 감정을 발산시킬 기회를 준다. 또한 감각교육의 기본으로 선세하고 정교한 손동작과 잠재된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카타르시스적인 효과로 정서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깡통이나 명 상자에 모래를 담거나 성냥갑으로 모레 벽돌 찍기를 해서 성을 만들며 모양과 크기 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모래는 찰흙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여 조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유롭게 부수고 새로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재료이다. 모래놀이를 하는 순간의 어린이들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들만의 창조물에 몰입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지며 규칙과 규범에 의해 작품을 만듦으로써 협동심이 생기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대화하기 시작한다. 또 프뢰벨은 어린이들의 모래놀이를 하면서 부모나 선생님에게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의하는 동안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 작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점을 찾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래놀이를 통해 사물 표현력과 언어 표현력이 몰라보게 달라진다. 그리고 단계적인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손 감각과 여러 가지 학습능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어린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꾸밈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건전한 정서가 형성된다. 또 어린이들이 모래놀이를 함으로써 대근육과 소 근육 발달이 증진되고 눈과 손 및 신체 각 부분간의 협응력이 향상되어 신체조정능력이 발달된다. 모래를 손에 쥐고 두드리고 주무르면서 어린이의 감각기능 운동 기능을 자극하게 된다. 모래놀이의 또 다른 방법은 마분지에 그림을 그린 후 그 위에 풀을 바르고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

색 모래를 이용할 경우 그라데이션에 신경을 써서 형태를 만들면 더 재미있는 작업이 된다. 요즘 인공모래가 개발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놀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모래를 가지고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요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인공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사물의 본질을 알고 인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른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든다 해도 그것은 본질이 배재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여 어린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모래놀이1작업의 효과	*어린이는 모래놀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모래놀이는 어린이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촉진 시킨다. *모래놀이에 의해 언어발달이 증진한다. *모래놀이는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모래놀이를 통해 사회성 발달이 촉진된다. *모래놀이는 어린이의 신체발달을 촉진 시킨다. *모래와 마분지의 어울림을 통해 이질적인 것에 대한 조화를 생각한다. *색 모래를 만들어 그라데이션을 인식 시킨다.

11) 모래놀이Ⅱ

프뢰벨은 마지막 작업에 흙을 어린이에게 만지게 하여 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린이의 마음에 심어 주고자 했다. 은물의 첫 번째 제시물이 구의 모양 이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진 별이다. 이 지구를 흙을 사용하여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어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속의 삶의 터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였다. 손으로 직접 흙을 주무르면서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특별히 정해진 형태를 요구하지 않고 어린이가 원하는 대로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모래놀이2 작업의 효과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흙을 알게 한다.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에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대 근육과 소 근육이 발달 한다. *정서 발달을 돕는다. *새로운 사물을 만들기 때문에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발달한다.

여러 가지 공작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까지 했던 놀이의 최고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입체적 성질을 가지고 점토를 사용하면서 창의력 역시 발달 한다.

dCollection @ chosun

Ⅵ.결 론

최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미술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진화되며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필자는 아동미술 교육의 선구자라 볼 수 있는 프뢰벨을 연구 해 본 결과, 신이 주신 창조물이란 모태로 기본적인 물건과 형태를 중심으로 사고하며 답을 찾아낸다는 데서 비롯한 창의력 은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 되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술을 통하여 인간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식과 발견에 기뻐하며 개인의 이상과 현실에 맞도록 경험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동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은물 교육은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제 1순위로 여기고 함께 놀이교육에 동참해주고 기본적인 도형과 선을 인지 시켜주는 데서 시발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은물 수업 교육자는 아동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형태와 모양들을 아낌없이 표출할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것, 나아가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칭찬이라는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더 나아가 필자는 현재 프뢰벨의 교구와 교육방법이 행해지고 있는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은물 수업과 관련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 찾을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첫째로, 아동을 대상으로만 하는 유치원 은물수업에서 벗어나 성인의 치료 개념을 인용하여 병원이나 심리 치료 학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도구를 프뢰벨의 교구와 접목시켜 더 빠른 치유 방법이 연구되어 질 수 있고 환자 역시도 빠른 쾌유가 가능하도록 연구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두 번째로, 은물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역시도 철저한 수업계획과 교과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육 방법은 정확한 정답을 요하는 수업이 아니지만 한가지의 교구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물 수업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프뢰벨이 연구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 들이다. 이 교구를 가지고 현재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현대인의 도구답게 재 창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뢰벨의 아동미술 교육은 단순히 교구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수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미술 교육에서는 현장학습과 놀이교육의 체계적인 지도 방법이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계속적인 연구자와 놀이 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일반화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d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곽노의, 프뢰벨 생애와 교육 , 서울 : 양서원 , 1996

-곽노의, 프뢰벨의 유아교육이론 연구 , 서울 : 양서원 , 1994

-김 정 , 미술교육총론 , 학연사 , 1993

-김미애 ,류경화 , 『놀이지도』, (서울, 동문사, 1997) , p.18~24

-김춘일 , 유아를 위한 창의성 교육 , 서울 : 교육과학사 , 2000

-서석남, 프-서석남 역 , 어머니의 노래와 애무의 노래 , 서울 : 양서원 , 1993

-서석남 , 프뢰벨 인간교육 , 서울 : 양서원 , 1995

-서석남 , 프뢰벨 인간교육 , 서울 : S.F.M연구소 출판부 . 2003

-서석남 , 프뢰벨 생명교육 , 국민서관 , 2003

-양경희, 열린 아동 미술 교육 , 서울 : 학지사 , 1997

-오종숙 , 유아미술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교육과학사 , 1989

-이근후 외 공역 , 유아 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양서원 , 1995

-전경원, 『창의력 개발을 위한 유아미술 교육』 , 서울: 교문사 , 2002

-조복희 , 『아동발달 』, (서울 교육 과학사 1999), 재인용

-팽영일, 『유아교육사상의 이해』 , (서울 ,창지사, 1995) p.181

dCollection @ chosun

< 논 문 >

-김성순 , 「은물교육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교육대학원, 2000)

-김병철 , 「미취학 아동의 미술활동이 전반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 논문, 영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박성애, 「프뢰벨의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지도방법 연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 대학원, 2004)

-박정자, 「프뢰벨과 몬테소리 교육사상 비교 연구」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1996)

- 장현우,「프뢰벨의 놀이 이론 고찰 」
(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5)

-정인숙 , 「인간교육 중심으로 살펴본 프뢰벨의 아동교육」
(석사학위논문 효성대학교 1992)

-홍선란 , 「프뢰벨 놀이 이론 연구」
(한국 교원 대학교, 1997)

d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	학 번	2006809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안지현 한문 : 安 祉 炫 영문 :An ji hyun				
주 소	광주시 남구 봉선2동 금호 1차 9동 1801호				
연락처	E-MAIL : sobett@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아동미술 교육에서 프뢰벨 놀이 교육이 미치는 영향 연구** 영어 :Study for the effect of FROEBEL gabe education on juvenile art educ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09년 8 월 일

저작자: 안 지 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Collection @ chosun